

인접 VTS의 연계 및 관제경계수역의 확대 방안

송 현웅 · 안 병일 · 김 재일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제사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제실장 · 관제사

요 약 : 해상교통관제는 선박 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선박이 항만으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미리 관제를 실시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제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항 선박에 관련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 관제와 인근 관제 및 접근 관제와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IALA에서 논의되고 있는 IVEF(Inter-VTS Exchange Format) 및 광역 AIS망을 이용하여 인근 관제실 간에 관제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관제실 및 유관기관 간에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서 관제수역의 확대에 따른 VTS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핵심용어 : IVEF, 접근관제, 관제경계수역, 관제연계, 광역선박모니터링, AIS망의 연계, VTS 정보의 활용,


목 차

- 1 항만관제의 기능 및 한계
- 2 관제의 광역화(광역선박모니터링)
- 3 접근관제의 개념 및 기능
- 4 관제 관련 시스템 간에 정보의 연계
- 5 효율적인 관제연계의 방향



관제의 광역화(광역선박모니터링 체계)

- **목적**
 - VTS-AIS 연계망 사업의 핵심은 항만중심의 VTS시스템에 50마일까지 장거리 선박위치 추적이 가능한 AIS를 연계하여 광역선박운항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사고를 줄이는 것
- **선박모니터링구역**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제구역 밖의 해역에 대하여도 선박모니터링구역으로 정하여 항행하는 선박을 관찰확인하고 해상교통질서유지 및 사고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항만관제의 기능 및 한계

항만관제의 기능

- 개항질서법과 해상교통안전법 상 교통안전특정해역 관제
- 항만 및 특정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한하여 관제
- 선박통항의 안전 및 항만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

항만관제의 한계

- 위험선박이 항만에 진입하기 전에 사전확인이 어려움
-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각 관제센터간 정보공유의 문제
- 다른 메이커의 관제시스템 간에 정보호환 문제 (부산: NORCONTROL, 울산·마산: ATLAS)



광역모니터링에서 항만관제까지 연계

관제의 흐름도

광역선박모니터링


접근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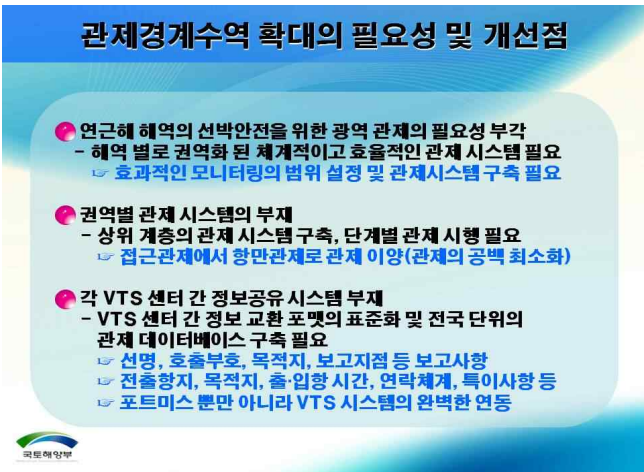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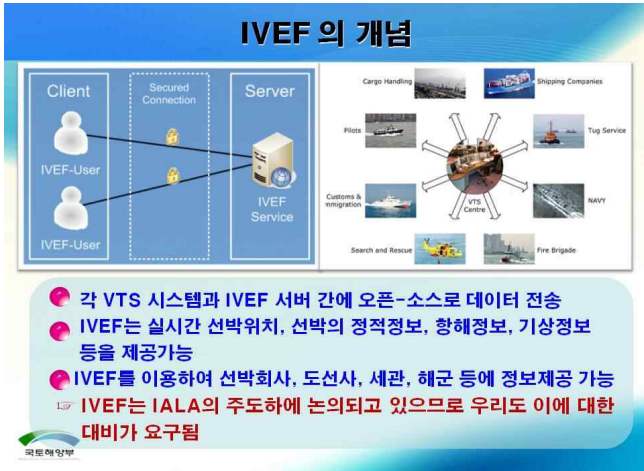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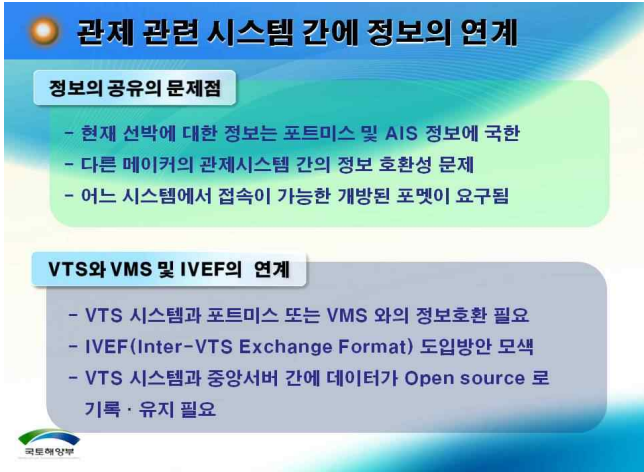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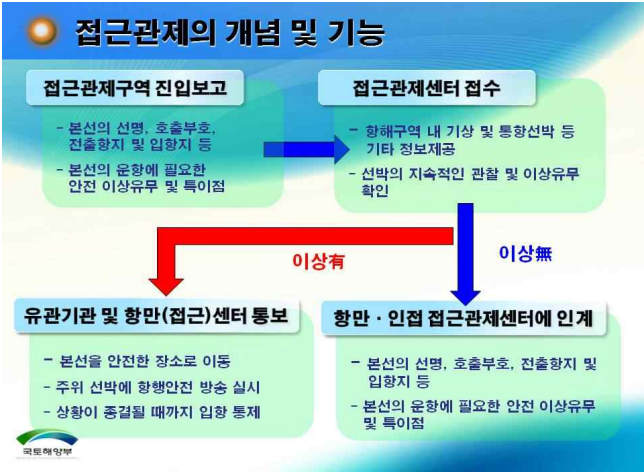
항만관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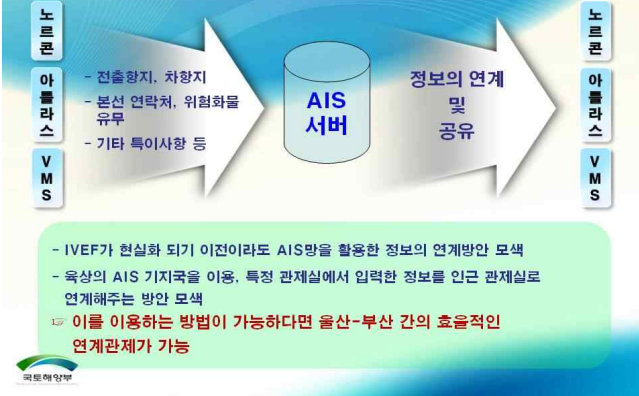
항만관제의 한계

- 최근들어 관제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 따라서 넓은 범위에 대수의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제운영방식이 요구됨
- 관제범위의 확대에 대한 방안 뿐만 아니라, 접근관제 및 인근 VTS와의 연계방법에 대한 중요성 대두
- VMS와 관제시스템 간의 정보의 전달 및 공유 문제
- ▶ 관제권 이양 방법, 정보의 공유, 관련 시스템의 정비 필요





광역 AIS망을 활용한 VTS 정보공유 모색



장안서 해역 관제에 대한 배경

- 장안서 통항 해역은 인천 평택 대산항 교통의 요충지
 - ↳ 각 항별 출입항선이 장안서 부근에서 교차함으로 위험
 - 장안서 통항 해역은 인천 평택 대산항 관제구역 밖의 해역
 - ↳ 목적항 관제로 통항선박의 효과적인 정보제공 애로
 - 소극적 관제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
 - ↳ 각 항만청 별로 관제 개입시기에 대한 소극적 자세
 - **본부 주관으로 장안서 해역에 대한 대산청 관제 잠정 결론**
 - ↳ 10' 9. 01. 대산청에서 장안서 해역 관제 시범 운영
 - ↳ 10' 12. 01. 대산청에서 장안서 관제 시행
 - ↳ 10' 12. 장안서 관제 인원 증원(3명)
- 국토해양부

접근관제와 항만관제의 연계



장안서 해역 및 변경된 관제 구역



효율적인 관제연계의 방향

- 관제운영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의 배려
 - ↳ 정보의 연계 및 공유로 이용자의 일반적인 반복 보고 감소
 - 인근 관제실 또는 접근관제실끼리 효과적인 관할구역 설정
 - ↳ 각 관제실 사이에 공백구역의 최소화로 선박운항 안전도모
 - 각 관제실 상호 업무협조 및 조정으로 관제연계의 효과증대
 - ↳ 각 관제실 관제구역 경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관제이양
 - ↳ 다른 관제실 관제구역이라도 위험상황 인지 시 통보 등
 - 인천·평택·대산 관제실의 장안서해역에서의 관제연계
 - ↳ 3개 관제실은 같은 회사의 관제시스템 사용으로 일정 부분 관제정보의 연계가 가능
 - ↳ 평택 관제실의 경우 버전이 낮아 정보연계에 애로사항
- 국토해양부

광역/접근 관제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VTS 시스템, VMS, 사용자 PC 등의 호환성
 - ↳ 노르콘, 아틀라스 및 본부에서 운영중인 VMS의 상호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관제구역에 대한 적절한 설정 및 통신 채널 설정
 - ↳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다른 관제구역과 혼선 방지 필요
 - 새로운 통신 설정 방법 모색
 - ↳ CH.16 쪽주 예상(항공관제의 교신방법을 벤치마킹)
 - 관제 대상에 대한 범위 한정
 - ↳ 넓은 구역을 관제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부여
 - AIS 및 관제시스템 오류 개선
- 국토해양부